

2020
고3 5모

2020년 시행 고3 5월 학평 국어 작자 미상 낙빈가 분석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지문 분석

[이 몸(시적 화자)이 쓸디 업서 성상(聖上)(살아 있는 자기 나라의 임금을 높여 이르는 말)이 바리시니]
(자신의 처지에 대한 화자의 생각)

부귀(재산이 넉넉하고 지위가 높음)를 하직하고 빈천(貧賤)(가난하고 천함)을 낙을 삼아

일간모옥(一間茅屋)(한 칸밖에 안 되는 작은 집)을 산수간(山水間)(자연, 여기서는 화자의 지은 집이 위치한 공간)에 지어 두고

[삼순구식(三旬九食)(서른 날에 아홉 끼니를 먹는다는 뜻으로, 집안이 몹시 가난함을 이르는 말)을 먹으나 못 먹으나](매우 가난한 화자의 처지)

십년일관(十年一冠)을 쓰거나 못 쓰거나

분별이 없어거나 시름인들 있을소냐(설의법)

[만사를 다 잊으니 일신(一身)이 한가하다](자신의 처지를 수용하고 받아들임)

<중략>

삼산(三山)이 어드메요 무릉(武陵)(도교에서 말하는 신선 세계)이 여기로다

무심(無心)한 구름은 취수(翠岫)(숲이 우거져 푸른 빛이 도는 산봉우리)에 걸려 있고

유의(有意)(마음을 두다)한 갈매기는 백사(白沙)(흰 빛깔의 모래)에 버려 있다

아침에 깨운 취를 점심에 다 먹으니

일없이 노닐면서 석조(夕釣)를 말녀 하야

갈건(葛巾)(참으로 짠 베로 만든 두건)을 기우 쓰고 마의(麻衣)(삼베로 지은 옷)를 녀의차고

낙대를 둘러메고 조대(釣臺)(낚시질하는 곳)로 내려가니

흐르느니 물결이요 뛰노느니 고기로다(대구법)

은린옥척(銀鱗玉尺)(비늘이 은빛으로 빛나고 모양이 좋은 큰 물고기)을 버들 움에 꿰어들고

낙조강호(落照江湖)로 적막히 돌아오며

산가촌적(山歌村笛)을 어부사(漁父詞)로 화답하니

서호매학(西湖梅鶴)(속세를 떠나 자연을 벗 삼으며 유유자적하게 사는 것을 비유한 말)은 겨루지 못하여도

증점영귀(曾點詠歸)야 이에서 더할소냐(설의법을 통해 자신의 처지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냄)

기산영천(箕山穎川)(현재 화자가 머물고 있는 곳)에 소허(巢許)(요임금 시절 부귀공명을 멀리하며 살았던 인물들)의 몸이 되야

천사(千駟)(화려하고 호화로운 시정에서의 생활을 비유한 말)를 냉소(쌀쌀한 태도로 비웃음. 또는 그런 웃음)하니 만종(萬鍾)(많은 녹봉, 여기서는 세속적 가치)이 초개(草芥)(지푸라기)로다

내(시적 화자) 살림살이 담박하니 어느 벗이 찾아오리

▣ 핵심 정리

- 갈래 : 전체 51구의 가사
- 주제 : 자연 속에 은거하며 누리는 삶의 즐거움

■ 이해와 감상

《청구영언》에 수록된 낙빈가. 낙빈가는 작자, 연대 미상의 가사로 전체 51구로 되었으며, 내용은 부귀공명을 버리고 산수에 파묻혀 빈한을 낙으로 사는 생활의 풍미와 고절이 최상이라 하며, 산천에서의 생활상과 풍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

이 작품은 벼슬길에서 은퇴한 관료가 산수에 파묻혀 안빈낙도하는 생활을 읊은 것으로, 강호가도계열(江湖歌道系列)의 작품이다. 안빈낙도를 내용으로 하는 다른 가사들과 같이 가난을 낙으로 삼는 '낙빈(樂貧)', 자연을 사랑하는 '요산수(樂山水)', 분수를 지킨다는 '안분(安分)'의 세 가지 주지(主旨)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사작품으로는 정극인(丁克仁)의 「상춘곡」, 차천로(車天輅)의 「강촌별곡」, 작자 미상의 「환산별곡(還山別曲)」·「강호사시가」·「창랑곡(滄浪曲)」 등이 있으며, 이것들은 사대부 사회에서 애송되었다.